



협회소식

NEWS

본회,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2억5천5백만원 모금 공식 결정

-검정소 관리 및 운영위 설치규정도 제정



본회는 지난 10월6일 양돈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상백 회장 주재로 제4차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 본회 회원들을 상대로 2억5천5백만원의 박멸기금을 모금, 돼지콜레라 비대본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사회는 최근 창립총회를 개최한 담양지부와 이천지부, 문경지부, 칠곡지부, 상주지회 설립을 승인하고, 담양지부의 신설에 따라 광주·장성·담양지부의 명칭을 광주·장성지부로 변경 승인했다.

이사회는 임원 선출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부의기로 하는 한편, 위원회규정과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중 일부내용을 개정하고 검정소 관리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제2검정소 설치 및 운영규정은 폐지되었다.

이사회는 지부조직 강화 및 돼지콜레라 방역업무 활성화를 위해 금년 12월말까지 신규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가입비를 제외한 회비 및 자조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금년도 양돈인대회는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식 및 학술세미나로 대체키로 하고, 분뇨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12월중 분뇨 액비화 확대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본회,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 보조 확대 건의

-보조 30%·용자 70%→보조 70%·용자 30%

본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의 보조 비율이 내년부터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됨에 따라 양축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9월30일 농림부에 보조 비율을 7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회는 건의서를 통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날로 심화되는 환경개선 문제로 인해 그간 많은 시행

착오를 빚어 왔고, 또다시 새로운 공법의 시설을 해야 하는 불합리의 연속이었다”고 밝히고,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생산비를 증가시키므로, 범국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특단의 배려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지원조건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이다.

본회, 해양투기규제강화 방침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본회는 지난 10월 4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에 가축분뇨를 규제없이 공해에 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긴급 건의했다.

본회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해양에 투기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000ppm 이하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돼지 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8,000ppm인데, 이를 4,000ppm 이하로 처리하여 해양투기를 할 경우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가축분뇨는 오히려 플랑크톤 생성을 돕고 유독성이 있는 공장폐수도 아니므로 외국과 같이 규제없이 공해투기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해역 지정기간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고, 그동안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4,000ppm 이하로 정하는 것을 물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본회, “식육가공 세계동향과 돈가 전망”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3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미트저널(주), 한국육가공협회 등과 공동으로 “식



육가공 세계동향과 돈가 전망” 세미나를 양돈생산자, 육가공업체, 수출입업체, 유통업체, 지방 행정기관 담당자, 농림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양돈산업 발전과 수출확대 방안(농림부 김동훈 사무관) ▲식육 및 육가공제품의 세계동향(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안동욱 교수) ▲최근 국내 돈육시장 구조변화와 돼지가격 전망(정P&C연구소 정영철 박사)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

본회, 「21세기 돈육산업의 비전제시와 전략」 세미나 개최

-본회·한국양돈연구회 공동 주최

본회는 한국양돈연구회와 공동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여 돈육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양돈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21세기 돈육산업의 비전제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0월15일 10시부터 충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환경, 경제성 및 생산성을 고려한 향후 사료급이 시스템의 변화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이기웅/천 후 제일사료 양돈팀장), ▲사육환경과 양돈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피해가 예상되는 질병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대책(박봉균/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민간방역체계 운영(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집행위원장), ▲우수 양돈장 경영사례-연간 24두 출하의 시대(안기홍/피그맨컨설팅 실장), ▲21세기를 대비한 돈육산업에서 정보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활용방안(이정규/경상대학교 축산과학부 교수), ▲세계적인 유통환경의 변화와 우리 나라 양돈산업의 대응(허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팀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본회,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1차로 5천만원 기탁

본회는 지난 9월30일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5천만원을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에 기탁했다.

본회는 지난 9월6일부터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2억5천5백만원의 박멸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이중 5천만원을 1차로 돼지콜레라 비대본에 전달한 것이다.

본회, “국산 돼지고기요리 50선” 책자 배부

-「제5회 여성발명가 우수사례발표회」에서

본회는 지난 10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여성발명가 우수사례발표회」행사에 참석한 회원, 발명가 등 350여명에게 “국산 돼지고기요리 50선” 책자를 배부하였다.

한국여성발명협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최하고 특허청, 대동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여성발명가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하여 여성발명가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줌으로써 발명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발명하는 여성을 통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의 발명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범국민적 발명사상을 양양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95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개최되어 5회째를 맞

고 있다.

본회가 배부한 “국산돼지고기요리 50선” 책자에는 돼지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방법과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 등이 소개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국산 돼지고기를 이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 (주)은세통신 시외전화 가입 신청접수

본회는 (주)은세통신과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12월 말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시외전화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 회원들이 본회를 통해 (주)은세통신 시외전화에 가입할 경우 전화요금이 최고 9.75% 할인되며, 지동이체 신청시에는 추가로 1%의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본회 또는 지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회 총무부(02-553-3942)로 문의바란다.

돼지오제스키병 검사 돼지콜레라와 함께 실시

-농림부, 본회 요청에 “2000년부터 시행 검토” 회신

내년부터 돼지콜레라 혈청검사시 돼지오제스키병도 함께 검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농림부는 본회가 지난 9월8일 돼지콜레라 혈청검사시 기왕에 채혈된 혈청으로 돼지오제스키병도 함께 검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추후 관계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시도방역기관 등)과 협의하여 2000년 가축방역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검토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 번의 채혈로 돼지콜레라와 돼지오제스키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마산지구지부 등 13개지부 박멸기금 납부

본회가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모금을 결정한후 각 지부에서 박멸기금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10월 14일까지 박멸기금을 납부한 지부는 마산지구지부(지부장 이용모) 310만원, 이천지부(지부장 이강희) 300만원, 함안지부(지부장 이길수) 210만원, 서천지부(지부장 유병필) 200만원, 고양지부(지부장 김윤영) 200만원, 고창지부(지부장 오균호) 50만원, 김제지부(지부장 이관호) 50만원, 남원지부(지부장 이금노) 50만원, 전주완주지부(지부장 강경철) 50만원, 포천지부(지부장 전창규) 50만원, 전북 정읍지부(지부장 정진섭) 50만원, 경남 산청지부(지부장 배영정) 50만원 등 총 13개 지부이다. 또한 기정도 고문과 박동래 전 부천지부장이 각 30만원, 주주호 회원과 임덕출 회원이 각 10만원의 박멸기금을 납부했다.

한편, 여타 지부에서도 회원별로 모금을 전개하고 있어, 10월 말이면 대부분의 지부에서 박멸기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는 각 지부에 박멸기금을 조속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 경남 5개시군 돼지콜레라 박멸 결의

본회 합천지부(지부장 강화봉)는 지난 10월9일 합천본택 인근 운동장에서 최상백 본회 회장과 합천군 축산관련 공무원, 업계 관계자, 서부 경남 5개 시군(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 진주시) 양돈인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 경남 5개 시군 양돈인대회 및 돈콜레라 박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본회 제2종돈능력검정소

직원 모집 공고

1. 근무처 : 제2검정소(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산 100)
2. 채용인원 : 1명
3.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이력서, 11월 10일까지 접수
4. 제출처 : 제2검정소(문의 0595-883-1647)
5. 응시조건 : 전문대 이상 축산관련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6. 우대사항 : 축산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산자격증 소지자, 검정전문 수료자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돼지콜레라 박멸없이 는 양돈산업의 미래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백신접종률 100% 달성을 통해 조기에 돼지콜레라를 박멸해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시된 기자재를 관람하고 친선 체육대회도 가졌다.

이천지부, 돼지고기 시식회 개최

이천지부(지부장 : 이강희)는 지난 10월 6일 지부사무실에서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부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양돈사료 원료의 수급동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10월 8일에는 이천시민의 날 행사중 이천공설운동장에서 시민 1,000여명을 상대로 돼지고기 시식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8일부터 22일까지는 돼지콜레라 2차 채혈을 실시했다.

본회 5개 지부(회) 설립 승인

본회는 10월 6일 양돈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 의를 열고 새로 지부를 설립한 담양지부 등 5개 지부(지회)의 설립을 승인했다.

□담양지부(지부장 : 국재근)

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342번지

전화번호 : (0684)382-8233

□상주지회(지회장 : 배민규)

주소 : 경북 상주시 지천동 444번지

전화번호 : (0582)534-5289

□이천지부(지부장 : 이강희)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00-5

전화번호 : (0336)632-6445

□문경지부(지부장 : 윤희수)

주소 : 경북 문경시 전촌동 162-1번지 2층

전화번호 : (0581)552-0426

□칠곡지부(지부장 : 차봉원)

주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동안리 831번지

전화번호 : (0545)974-7079 **양돈**



돼지콜레라 비대본 소식

돼지콜레라 비대본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재경부, 9월27일부터 기부금 손금 인정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27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돼지콜레라박멸 비상대책본부를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재정경제부 공고 제 1999-123호)했다. 이에 따라 돼지콜레라 비대본에 박멸 기금 등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처리된다.

도 본부·시군방역단에 운영비 지원

-돼지콜레라 비대본, HC박멸자금 첫 지원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상임본부장 최상백)는 지난 9월20일 도 본부와 시·군 방역단에 9

월 운영비 1억6천7백60만원을 지급했다. 민간자율 기구에 의한 돼지콜레라 박멸 운영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리는데 의미가 있으며, 도대책본부에는 3백30만원씩, 시·군방역단에는 2백40만원씩 각각 지원됐다.

이번 지원금 지급기준은 시·군 방역단의 경우 방역요원에 대해 매월 1백30만원을 상한액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방역단 운영비 50만원, 실태조사 및 방역관리비 20만원, 채혈검사 지원비 두당 1천 원 등이다.

비대본, HC 진단키트 확대 지원 건의

-시·군 방역단 본격 활동에 따라

돼지콜레라 비대본(상임본부장 : 최상백)은 지난 9월15일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각 시·군방역단을 통해 혈청검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